

職業世界的 倫理와 大學教育

陳 元 重

(서울大 教育學科 教授)

I. 職業과 人間

직업은 人間에게 있어서 平凡한 日常的인 것이다. 많은 직업 속에는 특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일도 있을 것이나, 그 어떠한 직업이건 간에, 중사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진기한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다.

직업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普遍的인 사실이다. 직업의 종류는 허다하지만, 특정인만이 갖는 것은 아니며 社會생활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란 例外的 存在에 불과하다.

직업은 인간의 社會생활에서 不可缺한 활동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직업에 중사 하는데, 이 다른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相補的으로 社會的 共同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은 개인들로 하여금 相異한 社會的 役割을 맡게 하며, 이것을 통하여 개인들을 社會成員으로 있게 하는 바 만약 이 結合의 고삐가 없다면 우리들의 社會생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社會生活 속에서 職業生活이 포함되었다기보다 社會生活은 어찌 보면 그대로 職業生活로 된다. 이 職業의 不可缺性으로 인하여 직업을 平凡한 것이며 普遍的인

사실로 되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職業은 個人이 社會의 分肢로 있게 하는 데 不可缺한 현상이다.

위에서 말한 바 職業의 平凡性, 普遍性, 不可缺性은 직업의 엄격한 탐구를 소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쉽다. 즉 직업은 人間생활과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물을 것 없이 自明한 것으로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職業에도 여러 가지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 몇 가지만 주려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1. 職業觀

직업생활에 대한 일정한 견해 또는 마음가짐을 직업관이라고 하는 바, 직업에 대한 理解나 解釋 여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接近方法에는 個人的 側面과 社會的 側面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직업의 개인적 의의를 살펴 보자.

첫째로 직업이란 收入 또는 營利를 통한 生計維持手段이요 生活保障手段이라고 볼 수 있다. 「먹기 위하여 하는 일」이란 個人生命維持手段으로 보는 데서부터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란 生業觀에 이르기까지가 있다. 그 특징은 自己保存의 個人的 樣式으로 社會에 대한 배려는 전혀 도외시된다는 점, 強制된 義務일 뿐이니 苦痛스

렵기만한 일이라는 점, 받기만을 唯一한 目的으로 하는 일이므로 社會的 寄與는 배제된다는 점, 따라서 倫理的 評價의 대상 以下로 된다는 점 등이리라 하겠다. 이와 같은 生業으로서의 직업관은 직업이라기보다 차라리 勞動概念에 귀속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직업이란 個人의 才能·能力·個性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生命維持, 生計維持, 自己保存을 넘어서서 自己實現手段이 직업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 특징은 고통스럽기 보다는 技術發揮(솜씨)나 文化創造에 따르는 기쁨 또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는 점, 強制的 義務나 放任된 嗜好라기보다도 內的 必然(天性·天分)에서 하므로 自主적이고 自由스런 동기에서 한다는 점, 받기만에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 貢獻性이 따른다는 점, 經濟的 營利 이상의 個人的 名聲에 따르는 矜持 또는 재미가 따르며, 결과적으로 社會的 寄與와 연결되고 奉仕精神과 相關되는 점 등이리라 하겠다. 따라서 이때에는 직업에 反省된 倫理이상의 倫理가 지배하게 된다.

앞에 지적한 개인적 의의에서 주의할 일은 營利와 無關하게 道樂 삼아 또는 趣味 삼아 하는 일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도 正當性이 없는 竊盜·乞人·賈淫은 직업일 수 없으며, 자주 바꾸어 持續性이 결여될 때에도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이다.

다음으로 직업의 社會的 意義를 살펴보기로 하자. 직업은 단순히 개인적 의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바 이 점은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職業이 未分化이던 시절에는 그 개인적 의의만으로 족했던 것이지만, 分業化되어 복잡한 職業體制를 형성하고 있는 現代社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의 職業이란 사람들이 分化된 社會機能속의 特殊的, 專門의 分野를 分擔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職分으로 삼고 社會的 役割을 實現함을 말한다.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社會的 連帶속에 들어가며 社會的 紐帶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 다른 많은 직업은 社會의 必要에 의해서 생겼고, 우리는 그 수많은 직업의 그물눈의 한 모퉁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 서로 서로 相補的 機能을 하니 貴賤의 구별이 따로 있

을 수 없는 것이다.

각자가 맡은 직업에는 職分이 다르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本業으로 삼고 責任의 主體로서 부여된 使命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이리하여 단순한 自己保存이나 自己實現이 아닌 社會的 役割遂行으로서의 職業觀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직업에는 물론 生存을 전제로 한 經濟的 意義가 있다. 또한 能力을 전제로 한 技術的 意義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도의 倫理的 問題 내지는 職業道德이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이 직업의 社會的 意義에서 루미되는 것이다. 직업윤리나 직업도덕의 문제는 직업을 하나의 事實로서가 아니라 社會的 責任으로 취급하며, 存在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當爲로서의 직업을 문제사하는 것이므로, 직업윤리의 本質論이나 規範論과 관계되며, 결국 職業哲學 또는 職業倫理學의 문제이다.

2. 職業觀의 變遷과 現代職業社會倫理의 狀況

직업관은 社會經濟體制의 構造變化에 따라 변천한다.

中世 封建社會의 직업관은 신분적·교권적 체제하에서 身分別 世襲의 직업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超世俗의·來世의 職業觀이 강했기에 現世를 부정하고 저세상을 위한 職業倫理觀이었다.

宗教改革 이후 倫理觀念의 世俗化를 거쳐 프로테스탄트의 職業倫理가 지배적으로 되었으니, 現世를 긍정하는 이세상을 위한 직업윤리, 세속 안에서의 禁慾에 따르는 職業義務의 강조 등을 낳게 되었다. 獨逸의 Beruf 라는 말은 Martin Luther의 聖書翻譯事業에서 나온 말인 바 그것은 神의 召命(Berufung)을 받아서 한 사업이었고, 단순히 고통스럽고, 먹기 위해서 한 勞動(Arbeit)이 아니라 기쁨·보람·사명감에 의하여 한 일이었다. 英語의 calling도 召命(call)에서 나온 말이고, vocation도 召命(vocato)에서 유래된 말이다.

資本主義體制에 들어오면서 직업의 利益社會的 畸型化가 생겨났다. 직업이란 產業社會의 勞動體制 안에서의 단순한 勞動부분이라거나 계속

적인 生計 및 營利機會의 기초라고 보는 견해인데, 한 마디로 먹기 위한 직업관인 것이다. 이러한 직업관은 직업에서의 經濟觀이 주축으로 되고 있으며, 職業倫리나 職業意識이 성립할 여지를 몹시 좁혀 놓았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바 「社會的分擔의 수행에 의한 社會的 通常的 實現 또는 社會的 役割實現」이란 직업관에 비추어 보면 기형적이라 하겠다. occupation, business, Geschäft, Beschäftigung, métier 등을 위에서 말한 召命으로서의 직업이라기보다는 「生業」「事業」 정도의 뜻 밖에 없다. 일이나 지위를 넘은 天職, 職業, 本分, 使命感 등의 宗教的 道德的인면이 退化, 喪失, 脫色된 말들이니 직업의 본뜻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현대사회에서는 職業概念보다 勞動概念·經營概念이 우세하게 되어 마침내 직업의 危機的 狀況을 빚어내기에 이르렀다. 社會의 위기는 곧 職業의 危機이며, 직업의 위기는 바로 직업에서의 倫理性的 喪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現代社會의 커다란 課題가 「倫理的 回復」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職業倫理的 回復」의 문제로 된다 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3. 韓國社會의 職業倫理

체제로 利潤을 추구하는 經濟活動과 善을 추구하는 倫理는 양립하기 힘든 듯이 생각하지만 이것은 正當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傳統思想 속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별개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李元龜는 倫理와 經濟의 不可分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生業을 缺하면 人倫이 喪한다. …… 人倫을 소홀히 하고 産業을 다스릴 수 없고 産業이 없이는 人倫을 밝힐 수 없다. 人倫은 비유컨대 男便과 같은 것이요 産業은 비유컨대 아내와 같은 것이니, 人倫만을 소중히 하고 産業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홀아비와 같고 産業만을 다스리고 人倫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과부와 같은 것이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누가 홀아비 노릇을 하고자 하며 그 누가 과부살이를 할 것인가」(心性錄)라고 하였다.

丁茶山은 個人의 욕망을 인정하고 利潤追求를 정당시하면서도 聖人概念을 세속화하여 그 욕망

과 利潤추구가 職業倫理와 멀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말하기를 「周子는 無慾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 아주 無慾한 사람이라면 善도 하지 못하고 惡도 하지 못하고 文學도 産業도 못하는 棄物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營利一元思想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職業의 聖人化의 경지에까지 발전시켰다. 즉 個人들은 利를 추구하면서도 누구나 聖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말은 바 職業에의 最善을 다하고 努力하면 聖인이 된다는 思想이다.

무릇 職業에서의 營利는 社會적으로 適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利潤이어야 함이 첫째 倫理性이며, 얻어진 利潤의 公正한 分配를 하는 것이 보다 큰 이윤을 얻는 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둘째 倫理性이며, 社會의 희생에 의하여 얻어진 利潤은 個人의 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에 還元하여야 한다는 것이 셋째 倫理라고 생각된다.

企業家들은 株主들에게 대한 倫理와 從業員에 대한 윤리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다 快適한 일을, 좋은 給料을, 좋은 勞動條件을, 일에 대한 滿足感을, 일의 安定性을, 昇進의 機會를, 한 人間으로서의 充實·創意·熟練·勞苦·努力·精進·팀익向上을 포함하는 倫理性을 더 한층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倫理는 雙務的인 것이다. 企業家들의 견실한 自己哲學 및 倫理意識과 從業員들의 새로운 勤勞倫理(正直, 責任, 使命, 職分意識 등)의 확립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兩者의 관계는 일 잘 하라: 돈 더 달라, 주인: 머슴, 勞力購買者: 勞力販賣者, 너: 나의 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人間愛와 民族愛를 기반으로 한 協調—調和體制로 파악함이 요청된다. 對立理論·鬭爭理論·相對否定理論은 다분히 西歐의 源流를 갖는 것이지만, 한국思想의 源流는 人間中心의 調和理論, 平衡理論이니, 人間中心의 三才思想(天·地·人)에 잘 나타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 大學教育의 課題

大學의 目的과 機能이 研究·教育·奉仕에 있다 함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고, 이 각 분야에

걸쳐 허다한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職業倫理와의 관계에서 大學教育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大學은 그 나라의 最高知性和 最高良心이다. 眞理探究는 實踐에 연결될 때 힘을 낳는다. 참된 값은 實踐에서 나와 實踐의 검증을 거칠 때 진리로 되게 마련이다. 知識의 眞僞는 實踐上的 檢證에서 判定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은 모든 일에 참가하는 直接經驗知만을 구할 수 없고 대체로 間接知에 의하여 媒介되는 知識을 가질 때가 많고 大學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間接知는 그것이 科學的 抽象으로서 客觀的 實在를 바르게 反映하고 있다는 承認이 필수조건임을 否定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大學에서의 研究는 倫理的 省察을 게을리 할 수 없다. 大學理念의 중요한 것으로 學問研究와 더불어 人格陶冶가 강조됨은 비단 學生教育上에서 뿐만 아니라, 研究者로서의 教授自身の 문제로까지 深化시키고 있는 수많은 事例를 알고 있다.

研究에 있어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大學의 教育機能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大學은 社會에서 요청하는 高級人力을 양성하는 機能을 갖는 바 技術者·高級文化擔當者の 教育機關이다. 단순한 專門知識의 傳授나 技術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市民教養을 갖춘 人材 養成을 지향하고 있다. 大學은 危機 속에 있다고 Philip H. Cooms가 말했지만, 이것은 비단 量的·制度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質的·理念的 내지는 哲學的·倫理的인 면으로부터도 깊은 省察을 요하는 문제이다.

한국 大學의 設立過程은 倫理的인 면으로 볼 때 無計劃性, 質的 不充實性, 理念不在性 등이 지적된 지 오래고, 이에 따른 大學整備도 수차에 걸쳐서 있었으니 모두 우리의 省察表現이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深化시켜 나가야 할 중대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現代科學은 專門化傾向을 더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大學은 명실공히 文化的 統合을 위한 Universitas로 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이란 生活道具 이상의 知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본연

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Karl Mannheim은 大學教育의 必要性을 강조하면서 「道德的 崩壞의 하나는 野蠻人을 간직한 專門家의 心性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技術적으로 훌륭한 專門家에게 결핍되기 쉬운 哲學的 精神 내지는 倫理性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大學에서의 文化統合 내지는 知識의 統合이란 자기의견의 斷定이 아니다, 同一事實에 대한 여러가지 思考가 있음을 제시하고, 視角의 不斷한 擴大를 향한 前進에로 이끄는 자세이다. 이리하여 專門教育과 教養教育의 지혜로운 調和는 앞으로 大學이 해결하여야 할 큰 課題일 것이다.

大學이 엘리뜨大學을 넘어서서 大衆化되려는 추세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大學은 來日의 人材를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社會를 맡고 있는 社會人의 教育을 위하여 그 門戶를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의 學問的 使命, 技術的 使命 못지 않게 그 教育的 使命은 來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로 되어 있다. 이 社會의 倫理性의 回復에서 다할 大學의 役割은 실로 莫重하다 아니 할 수 없다. 확실히 教育만으로는 社會改革問題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教育的 努力 없이는 어떠한 改革計劃도 持續的, 根本的 意義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觀念은 항상 지속적으로 人格的 接觸이 있는 小集團 속에서 發生하였음을 學生指導에서 각별히 留意할 필요가 있다. 觀念은 大量의 公開手段에 의하여 市場에 流通하지만, 그곳에서 生産되는 것이 아니다. 精神과 知的 情熱은 항상 大學 안의 小集團에서 生産·養育·試驗되는 법이다. 그 위에 새로운 觀念은 大衆에 널리 流通·傳播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知的 倫理的인 오아시스로서의 大學만이 宣傳과 廣告의 形式이 文化的 모델이 되지 않도록 이 社會를 지켜 나야 할 것이다.

확실히 職業觀에서 否定的인 현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建設的이고 前進的인 職業觀 摸索과 創造는 앞으로 大學教育에서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課題이다. *